

이제 우리는 연간 벌꿀 생산의 대부분을 5월중의 아카시아 밀원에서 채밀하고 있고, 앞으로 벌꿀 생산의 증가는 아카시아 밀원에서 더욱 가능하다는 것에 이의를 가진 양봉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가온이 벌꿀 생산량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는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도 이제는 종전 양봉인들 몇몇이 모이면 그 자리에 하나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가 전기가온을 하는 사람일 정도의 인식이 되었다. 옛날에 비하면 큰 변화이고 인식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게된 상황에서도 막상 내 자신이 능숙하게 하겠다는 자신이 없어서인지 아직 착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는 몇 가지 더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몇 해 동안 전기가온을 시행한 사람의 시각으로 이러한 몇가지 생각들에 대한 검토를 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전기가온에 대하여 많은 경계심을 가지게 한 이유를 알아본다.

①화재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②과열로 벌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

③사용하던 기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④봉군관리 성적이 좋아지지 못했다.

⑤ 일손이 많이 가고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⑥ 비용이 많이 나는 것 같다.

⑦ 기타 이유들 즉, a) 전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 b) 봉군관리 주의력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나 지나친 자부심 등 대체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기가온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다. 거의 모두가 과거에 사용한 기기가 불량하였거나 봉군관리에 미숙했던 점이 원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항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초기의 연구자들이 벌통에서 연기가 나는 정도

의 '불'은 종종 겪었으나 본데, 이곳에는 몇 해전에 '화재'를 체험한 장본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꺼내 보기로 한다.

지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밝힐 수 없으나 그분들은 전기가온의 효과에 매우 심취하여 자작으로 전열판도 만들어 사용하며 매우 열심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남해안 지방에서 벌벌을 관리하다가 필자가 안전한 전열판이 있다는 발표를 듣고 충남 부여로 필자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 전날(3월4일) 1매씩 증소를 해두고 방문했다. 그 당시 시작 단계에 있던 필자의 봉군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화재를 경험했던 이야기도 하였



김수기(부여밀봉원)

량 조절에 불편하면 봉군의 정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불편을 끼쳐주는 일도 생겨난다.

오늘날 주로 문제가 되는 단계는 바로 이 ②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분들은 하루 저녁에도 몇 차례씩 나가보고 확인을 한다고 했다. 물론 봉군이 더워하지

전기가온착수 너무 서둘 필요없이 보통 시작하던 시기 4월의 화분해결 때까지

않는가가 주로 궁금하여서였겠으나 한번 놀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기기가 얼마나 불편한가를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전기가온 자체를 기피하는 분들이 많다. 초기의 실험적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넘겨가며 봉군에 가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연구해 내니 기구를 제작하여 공급하려는 분들이 나섰어도 우수하게 제작된 제품이 없어 뜻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것은 상업적인 제품 개발이 바로 뒤따르지 못하여 전기가온이 일찍 정착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기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봉군관리를 잘하는 양봉가들은 꾸준히 성공적으로 벌을 잘 길러냈으나 오늘날처럼 벌들에게 온갖 정성을

이 때문에 필자가 '썬히타'를 소개하여도 그와 비슷한 제품일 거라는 불신감 때문에 이제 오늘날 만큼 '전기가온은 할만 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얻기까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였다.

지금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실패나 실수를 겪었거나 목격했던 분들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봉군 한번 벌 한통이 덜 길러졌을 때의 보이지 않는 손해액 수 등을 감안하면 이 우수한 봉기구 장만에 드는 비용이, 화분 한덩어리 값에 해당하는 비용의 크고 작은 것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필자는 이 '썬히타'를 보급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력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꿀 여러 드림을 뜰 준비를 못하

고 있다는 알기 쉬운 비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 증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의 보람 같은 즐문(拙文)을 가다듬느라 밤세우는 피곤함도 잊게 된다.

이 때문에 아직 전기가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는 그 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는 벌이 강하므로 굳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리고 확신감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과거에는 봉군관리를 하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급수나 화분떡 공급 등과 같은 기술적인 관리를 누구나 하고 있으므로 이제 '畫龍点睛'이라고 전기가온만 더하면 큰 성과가 나타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우리나라의 아카시나무도 해마다 가지가 굵어져서 유밀상태가 매년 증진되고 있다. 이 나무의 전문가들이 제시므로 어떠한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필자는 과거에 군산공원에서 보았던 고품 아카시나무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나무가 꽃핀 모습은 멀리서 보면 일반적인 청장년목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였다. 전체적인 수형은 청장년목들의 두 배 높이의 키와 웅장한 독립수의 모습이면서 고품의 티가 나서 아주 큰 감나무의 나무 모습이었으므로 나무 전체에 가득 달고 있는 백색 꽃이 아니었으면 다른 종의 나무가 아닌지 할 정도였다. 나무가 크므로 그 옆의 젊은 나무들의 몇배에 해당하는 많은 꽃을 고품 달고 서 있는 모습은 노익장이면서 노익미(老益美)라고 할만도 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있는지 궁금하며, 아카시 나무는 이처럼 노목도 꽃이 많이 피는구나! 감탄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아카시나무의 유밀 가치에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다. 다만, 중부 이북지방의 아카시나무에서 꿀이 더 많이 나는데도 이러한 지방에서는 벌벌의 산란 가능한 기간이 짧아서 역봉을 길러내기 가 여의치 않다. <7면에 계속>

첨단기술의 밀양소초

본원의 소초는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소초계의 정상을 달리는 본원 소초는 그 품질을 전국의 양봉인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유사품에 유의하시어 본원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봉저소초, 재래종소초도 생산발매

·봉산물 ·봉기구 ·중봉

밀양양봉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911(밀양우체국앞)
☎(0527)354-2572 · 53-5688 대표 박영순

신개발품 양봉용 급수겸용 터널자동사양기

터널자동사양기는 벌통안의 밀바닥이나 소광위 또는 소문앞에 자유자재로 사용할수 있으며 봄벌 증식때는 소문앞쪽 설치시 사양기에 의한 온도변화가 없고 사양액 급수공급시 확인이 용이함.

- 공급실안의 육기는 조립식으로 제작되어 수습개월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고무패킹은 2·3년 정도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므로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 도 손쉽게 갈아끼우면 된다.
- 공급실안은 문제점을 새로 보완해 D자형으로 제작했으므로 벌들은 먹이를 완전히 가져갈수 있어 공급실 내부는 항상 깨끗해서 노봉 및 도봉현상이 일절 없다.
- 노즐을 상하로 조절하면 100~150cc 유입할수 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10분만 밸브를 틀면 한 밸브에 50군, 전봉군이 100cc 유입되므로 화분채취나 로얄제리 생산에 효과적이며 벌증식에 유리함

신아밀봉원 ☎(0564) 734-3973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264-3. 김동순 배상
온라인 : 우체국 700385-0000982, 농협 715010-52-000420